

# 담양교육청, 리더십 회의 개최

### 지역 초·중·고 학교장 대상 강화 프로그램 명지원 일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해



담양교육청은 지난 9일 담양 초·중·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관리자 리더십 강화를 위한 네번째 학교장 회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명지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담양 학교장 회의는 학교급별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활동 안내 및 지역교육 발전 관련 주제별 토론 형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교장 간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감 및 교사 학습공동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전에는 의무교육 강화 및 무단결석 관리 등 다양한 학적 관리에 대한 연수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교육 및 학교 관리에 대한 교육지원활동 안내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2020 담양교육' 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요 교육지원활동이 안내되어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오후에는 학교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장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자치에 대한 주제로 자율적인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여한 남면초 교장은 "분기별 학교장 회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학교 경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받으며 학교의 여건에 맞춰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올해의 성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중 설명회를 갖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실수업개선 및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청 주관 사업을 감축하여 학생 중심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학교장과 시장이 목포교육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목포교육청은 지난 9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 학교장과 교육지원청·목포시청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장 회의를 실시하였다.

목포교육청은 교육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토의·토론 형태의 교장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제4차 교장회의는 특별히 목포시장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 의미를 더했다.

1부, 목포시장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에는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교장들은 원도심 학교 살리기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주제와 더불어 목포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함께 참석한 국장 및 과장이 보충하는 등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목포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회의에 참석한 교장은 "시장님

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토론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시청에서 교장회의를 하게 되어 정말 좋았다"며, "시장님이 목포교육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약속한 만큼, 학교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새로운 학습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시장님을 만나면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은 목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며,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지역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을 목포에서 먼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교육청은 2020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참여위원 등 다양한 만남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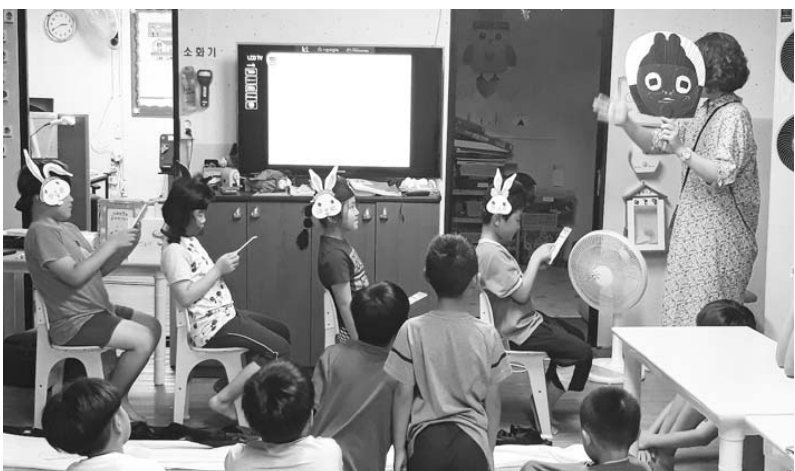
# 고흥평생교육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성료'

고흥평생교육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2019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을 마쳤다. 올해 고흥평생교육관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7회 걸쳐 456명의 과역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사서 운영 도서관 활용수업 및 독서프로그램, 독서지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용 책 읽어주세요', '동화작가와 함께하



는 연극프로그램', '영화관람 및 문화체험'으로 운영했다.

고흥은 농어촌 지역으로 교육과 문화생활에 참여가 제한적인데 과역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 독서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업을 담당할 김

연화 주무관은 도서관 함께 책 읽기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6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표창을 받았다.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흥=한은심 기자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020년도 겨울 독서교실 운영

### '내가 사는 지구 여행' 주제로 운영...선착순 모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2020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3학년 25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참가자 모집은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회관 누리집 (lib.gen.go.kr/student)을 통해 학생 계정(ID)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내가 사는 지구 여행'을 주제

로 운영하는 이번 독서교실은 도서관 이용법, 내가 살아가는 지구 속 탐험하기,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리포터 인터뷰하기, 아메리카 대륙 브레인 스토밍, 회전목마 토론,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지도 만들기, 지리콧넨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활동도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찾은 엄마의 숨결/ 고은에 저, 황금으로 만든 나라는 왜 사라졌을

까?/김호경 저, 앵무새의 부활/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저 총 3권이 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박금화 문헌정보과장은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회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밖의 문의는 ☎221-5577로 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 전남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김성인 확정

전남교육청이 9일 3급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공모에 김성인(金聖寅·62) 전 화순군의원을 최종합격자로 확정해 공고했다.

김성인 감사관 임용예정자는 제2대, 제3대 화순군의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7월부터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을

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이번 감사관 공모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현직 공무원 등 10명이 응시했으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교육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다. 추후 임용 결정 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자로 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2



년간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관은 내부통제제도

를 내실화하고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있다.

